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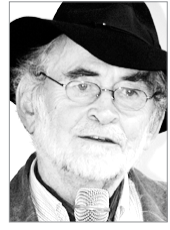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활성화 포럼

해양·관광 중심 J프로젝트 사업 재조정 필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광주일보가 주최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활성화 방안 포럼'이 26일 영암 현대호텔에서 열렸다.

“관광객 눈높이 맞춘 지역특화상품 절실”

베르너 샷세 전 한양대 석좌교수



◇지역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화 전략=무엇을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외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세워주고 고민해야 한다.

산, 문화재 등 문화자원을 설명하는 등 고객 친화적인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감동주고 흡인력 있는 콘텐츠 마련을”

조용준 조선대 교수



◇글로벌화시대의 기업도시 역할과 과제=누구나 방문하고 싶은 만큼의 흡인력 있고, 감동을 주는 창의성 있는 콘텐츠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

만들 수 있을 때만 능력을 발휘한다. 토지 매입비가 높거나 조성원가가 높으면, 당연히 분양가도 높고 개발경쟁력도 약화되는데, 특히 수도권에서 떨어진 농촌에 입지하는 도시는 가장 큰 매력 없어지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광주일보가 공동 주최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활성화 방안 포럼'이 26일 오후 영암 호텔현대에서 열렸다.

“KTJ완공·페리유치·카지노 설치 필요”

김홍규 연세대학교 교수



◇기업도시 당면과제와 도시경쟁력 제고 방안=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라고 하면 떠올릴 수 있는 특유의 브랜드명을 창출해야 한다.

경제자유무역지대 '제벨알리'에 5000여개의 기업을 유치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크루즈·요트·마리나를 선도사업으로”

김천중 용인대학교 교수



◇기업도시 수변공간을 활용한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영암·해남 기업도시에는 해양·관광을 중심으로 사업 방향을 다시 잡아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크루즈 관광산업과 수퍼요트사업은 해양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두 축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흡수하는 수단이 마리아나고 해안과 해양관광지 주변 관광시설이라는 점이다.

“기반시설·설치비용 충분한 지원

기업도시 특별법 개정 이뤄져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활성화 방안' 포럼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열린 토론회를 벌였다.

박태원 관운대 교수는 "J프로젝트 선도사업인 F1 대회가 가지고 있는 첨단성·스피드한 요소에 슬로시티적인 점을 융·복합시켜 기업도시에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신겸 전남대 교수는 "더이상 골프장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시기는 지났다"면서 "기업도시 사업 구상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민간투자자에 이익 우선 배당 해주자”

이태호 한국채권연구원 이사



◇기업도시의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전략=현재 기업도시사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는데도 투자가 부진한 상태다.

우선 투자를 진행해 민간자본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 적정이익이 실현될 때까지 이익도 민간투자자에 우선 배당해 민간투자자의 초기투자 부담도 완화해줘야 한다.

“F1 연계 관광프로그램 개발 급선무”

유의동 체육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F1 경기 등 스포츠이벤트를 활용한 마케팅 방안=기업도시 건설의 선도사업인 F1 코리야 그랑프리라는 지역 활력소가 될 것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F1과 관련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 내방객 체류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다른 기업유치를 유도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나주혁신도시 전문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나주혁신도시에 투자하십시오! 솔로몬공인중개사 사무소

현대공인중개사 토지 매매,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매매, 수익성 좋은 다가구 주택

나라공인중개사 펜션텔 매도, 전라남도 영암읍 222번국도점

중앙공인중개사 상가건물, 상가건물 신축부지, 대지.전.담.임야

동명공인중개사 [상가매매], [주택매매], [토지매매]

대인동실업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뿐, 상무지구 스타벅스빌딩매매(영), 상무지구 빌딩 임대, 아파트 1층 상가 매매